

# '노벨문학상' 토니 모리슨, 산문집 출간 문화역량 통한 순창군 미래경쟁력 강화

국내 첫 산문집 '보이지 않는 잉크' ... 에세이 · 연설 · 강연 등 묶어

"저는 남과 다른 목소리가 지워질까, 쓰이지 않은 소설이 지워질까 두렵습니다. 그릇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속삭이거나 삼켜야 하는 시들, 지하에서 번성하는 금지된 언어, 권력에 도전하는 수필가들의 묻지 못한 물음, 무대에 올리지 못한 연극, 제작이 취소된 영화 등이 지워지는 데 대한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악몽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보이지 않는 잉크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p. 15~16)

199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토니 모리슨의 국내 첫 산문집 '보이지 않는 잉크'가 출간됐다.

토니 모리슨은 미국 흑인 문화의 상징적 인물이자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다. 미국 흑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만큼 그는 소설 집필 외에도 인종차별과 젠더 갈등,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위험, 문화와 교육이 처한 불행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날카로운 견해를 펼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보이지 않는 잉크'는 이러한 토니 모리슨의 생각들과 마주할 수 있는 책이다. 그의 소설가 뿐 아니라 역사가, 비평가로서 그가 내놓았던 에세이, 연설, 강연 등을 한데 모았다.

특히 작가가 하는 일에 대해 서술한 부분은 토니 모리슨이 어떤 자세로 집필활동에 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작가가 하는 일은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한다는 것이다. 작가의 책임은 (시대가 어떻게든) 세상을 바꾸는 일, 자신의 시대를 더 낫게 만드는 일이다. 그게 너무 야심에 차 보인다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일이다.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니 모리슨이 작가로서의 활동을 넘어 여러 활동을 선보인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착취와 혐오 속에 가려진 진실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 "독자는 텍스트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쓰기'를 듣는다"고 한다.

토니 모리슨은 '당신이 읽고 싶은 글이 있는 데 아직 쓰인 게 없다면 당신이 써야 한다'는 발언으로 유명하다. 그는 출판편집자로 일하며 아프리카 작가 문학을 소개하는데 힘 썼고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흑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설로, 에세이로, 강연으로 풀어냈다. 2019년



199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토니 모리슨의 국내 첫 산문집 '보이지 않는 잉크'가 출간됐다.

8월5일 뉴욕에서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뉴스

각종 교양 · 문화 전문가 위한 공모사업 연계 지원

순창군이 지역의 백년(百年) 미래를 다지는 초석으로, 각종 창작·예술·교육 등의 전문가를 위한 관련 분야별 예산지원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지원방안 청사진을 제시했다.

군은 지역 내 각종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 등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취약해 마땅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이번 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 마련으로, 이들이 적절한 예산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지원함으로써 개인별 소득창출에 따른 자립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군의 의지도 엿보인다는 평가다.

군은 이를 위해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미래전략 T/F팀 주관 하에 인적·공간적 자원에 대한 사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 부문에서 참여 가능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유기적인 연

계방안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 참여 신청에 있어,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부담 비용면제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지역 내 교양·문화 인적자원의 활성화와 함께 군민에게도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지역사회 문화역량을 전반적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순창군의 복안인 셈이다.

황주 순창군수는 "미래사회를 이끄는 힘은 결국 문화에 있다"며 "순창군에서 아직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한 우수한 교양·문화 인적 자원에 대해 적절한 연계와 지원을 통해 힘을 보태고,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가 공존하는 일상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역량을 통한 순창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김용삼 전 문체부 차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장관 황희)는 지난 19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 김용삼(64)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사장은 문체부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전통예술과장, 중무실장,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대내외 현장과 소통해온 문화예술 정책 전문가다.

최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회공헌재단(비영리재단법인) 이사장을 맡았다. 마을여행

과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사업 등 관광·문화 분야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공감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왔다는 평을 들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신임 사장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박물관 공연과 문화상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께 위로와 기쁨을 선사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역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이용 촉진,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2004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뉴스

## '조선시대 상단' 미스터리 소설 '탄금(呑金): 금을 삼키다'

프랑스 거주 한인 작가 장다혜 첫 장편소설

때는 조선시대. 고가의 미술품 거래로 돈 왕이라 불리게 된 거상 심열국의 아들 홍랑이 배다른 누이 재이에게 흥동백을 따다 주겠다고 한 뒤 홀연히 사라진다. 조선팔도에 내로라하는 인간재첩꾼들을 써보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한다. 홍랑의 실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재이는 벌채에 감금되고, 양반 핏줄인 무진이 양자로 들어온다. 그러던 중 홍랑은 사라진 지 10년 만에, 어린 시절 기억을 잃은 채 돌아온다. 심지어 암살이 전문인 검계(劍契)의 일원으로.

조선 배경으로 하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소설 '탄금(呑金): 금을 삼키다'가 출간됐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유학하고 파리에서 지내는 장다혜 작가의 장편소설 데뷔작이다. 20대 초반에는 작사가로 활동했고 30대에는 에세이를 펴내기도 했다. 40대가 되면서 쓰기 시작한 작품으로 5년이란 기간 동안 쓰고 보고 다시 쓰기를 반복하면서 완성했다고 한다.

'탄금'은 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존의

사극과 달리 상단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내약함, 오만함, 복수, 몰락 등 다양한 모습을 비춘다.

해외에 오래 거주한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등장인물의 대사나 표현이 시대극에 어울리는 고어와 방언들로 채워져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야기는 홍랑의 실종과 귀환, 그 속에서 재이와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중심으로 데릴사위, 씨반이, 양자, 무당, 추노꾼, 싸움아비, 피장아티 등 조선 시대에서 살피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와 인물을 등장시킨다.

저자는 "많은 시대극과 역사극, 대체역사극을 읽었으나 신분을 초월한 출세담, 전쟁속 영웅담 혹은 궁중비사와 당파싸움이 주를 이루기에 신선한 시대극에 대한 갈망이 늘 있었다. 그런 참신한 이야기를 직접 써보고 싶다 생각하던 차에 프랑스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탄금'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틈틈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담아내고 싶었다. 하염없는 기다림, 어긋난 약속, 전달되지 못한 서신과



같은 애뜻한 낭만들을, 또 지엄한 법도 아래 오가는 눈빛과 푹푹 여민 사이로 드러난 살결처럼 금지된 긴장감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했다. /뉴스

## '2020 오늘의 우리 만화상' 정영룡 '남남' 단행본 출간

2020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받은 정영룡 작가의 '남남'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남남'은 20대 후반 디자인 회사 직원 김진희와 동네 병원 물리치료사인 40대 중반의 진희 엄마의 이야기다. 때로는 남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자매처럼, 친구처럼 '지지고 볶고' 살아온 모녀가 서로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어느 날 진희는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알게 되고, 진희 엄마는 감추고 싶었던 모습을 들기지만,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고 있다.

'남남'에 수여된 '오늘의 우리만화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협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만화상이다.

선정위원들로부터 "입체적인 캐릭터와 디테일한 생활감이 매력적인 작품으로, 성인 여성의 삶을 디테일하게 묘사했고 생활 웹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정영룡 작가는 2015년 웹툰 '알아집니다'로 데뷔, 2019년부터 다음웹툰에서 '남남'을 연재하고 있다. /뉴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